

미국 6개 대학 순회전시 『朝鮮時代 선비의 墨香』展 보고서

김 우 립*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미국에서의 전시 및 활동 |
| 2. 해외 순회전의 꿈 | 6. 現代에 대한 예우 |
| 3. 초기 진행 과정 | 7. 맺음말 |
| 4. 전시준비 | |

1. 머리말

이 글은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미국 6개 대학 순회전 『朝鮮時代 선비의 墨香』展에 대한 보고서이다. 이 순회전은 대학박물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민간 단체에 있어서 처음으로 있었던 해외 순회전이었기 때문에 주위의 많은 염려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이 글은 이번 전시의 대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의의와 성과보다는 진행과정 및 그 속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과감히 기록하여 보다 실질적인 보고서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2. 해외 순회전의 꿈

전시회의 발단은 1994년 봄 어느 날, 이기서(한국학연구소장), 김재열(한국학연구소 객원 교수), 윤세영(박물관장) 세 분이 술자리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이기서 교수가 미국에서 보았던 일본의 어떤 전시에 대한 느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그것은 전시의 내용물은 빈약한데 비하여 전체적으로 포장(전시기법 및 도록 등을 지칭)이 잘되어 있었고 관람객이 많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전시조차도 한국에 의해 기획된 전시는 찾아보기가

* 고려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사

힘들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때부터 이 분들의 대화는 거침없이 진행되어 한국학연구소에서는 예산의 확보 및 집행, 학술세미나 등 행사에 관한 업무를 맡고, 박물관에서는 전시에 수반되는 모든 업무와 작품의 안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김재열 교수는 미국의 박물관과의 전시교섭에 따른 업무를 맡기로 결정하였다. 비록 도원결의는 아니었겠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결정 내용만큼이나 그 날의 그 분들의 흥겨운 술자리를 필자는 가히 짐작할 수 있겠다.

후술할 이번 순회전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가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식해서 이 일을 시작했지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알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 보고서는 무식한 사람들의 성공담으로 진행 과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점들을 비교적 솔직하게 밝히고자 한다.

3. 초기 진행 과정

1) 전시기획

위의 계획이 준비 과정을 거쳐 가시적인 성과물로 나타난 것이 1994년 5월 31일에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제출한 전시지원신청서이다. 이 신청서에 의하면 가칭 『朝鮮朝 선비의 墨香』이라는 전시명으로 Univ. of Chicago를 비롯한 7개 대학에서 1995년 9월부터 각 전시장별로 약 3주간씩 1996년 5월까지 진행하며, 동시에 동부·중부·서부 3개 지역으로 나누어 한국미술에 관한 학술세미나 및 강좌를 개최하는 계획이었다. 여기에 드는 총 예산은 1억 3천만원으로 잡혀있었다. 물론 이것은 책상 위에서 구상되었던 것으로 전시회 진행과정 중 많은 변동이 있었다. 그러나 예산이외의 다른 계획들은 큰 변화 없이 진행되어졌다. 그리고 1994년 12월 해외전시 계획에 대한 품의서를 학교당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음으로써 이때부터 공식적인 행사로 진행되었는데 준비 시간상 전시기간은 다소 늦추어 졌고, 예산은 위의 신청서와 동일한 수준이었다.

이후 미국 대학과의 교섭이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어져 갔는데, 이 일을 전담한 분이 전술한 김재열 교수였다. 김교수는 한국고등교육재단의 국장으로 미국 출장시 본인의 업무 외에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 직접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간의 모든 연락체계는 김교수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실 예산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 일을 성사시키겠다는 일념으로 헌신하여 주신 것이었다.

미국 대학과의 전시유치 및 전시기간 협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대한 인지도가 미국측 대학에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본 박물관에서는 교섭 대상 학교에 현재까지 출판된 모든 도록을 발송하여 소장품의 규모에 대

해서 확인시켜 주었으며, 나아가 국립중앙박물관장 명의의 추천서를 미국 대학에 발송하여 해외전시에 관한 고려대학교의 미국 대학 측의 우려를 해소하게 되었다.

둘째, 우리가 전시하고자 하는 朝鮮時代 文人畵에 대한 인식부족 및 이번 전시회에 실제로 출품될 유물에 대한 수준을 이해시키는 문제였다. 예를 들어 UC Berkeley의 경우 이번 전시 유물의 샘플 필름을 유명한 중국화 전공의 James Cahill 교수에게 보이고 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우리측에 입수된 그의 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골자는 문인화란 scholar-amateurs에 의해서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전시유치는 상당히 부정적이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한국의 문인화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됨으로써 빚어진 오해였음이 틀림없었다. 이러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을 때 마침 전시유물을 확정하고 사진촬영을 마친 관계로 모든 전시 유물의 슬라이드를 발송하고, 문인화에 대한 확실한 개념 및 고려대학교 소장 문인화에 대한 수준을 설명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셋째, 전시일정 및 전시기간을 협의하는데 발생한 문제이다. 우리가 교섭하려고 했던 미국 대학의 경우 박물관 또는 갤러리 형식의 전시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이미 최소 1년, 길게는 3년까지의 특별전 계획이 잡혀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별전의 기간도 최소 8주가 기본적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전시기간은 미국의 관례에 따라 8주를 기본으로 논의되어 갔지만 매끄러운 순회전을 위하여 각 대학의 일정을 조정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다. 당초 전시를 희망하였고 우리측에서도 적극 유치하고자 하였던 Harvard Univ.와 협상대상 박물관 중 유일하게 대학 박물관이 아니었던 Cleveland Museum은 결국 일정 조정이 안되어 제외되기도 하였다.

전시의 협상 초기 단계에서는 전술한 3가지의 문제점들이 미국의 각 대학과 개별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다 원활한 협상과 일정조정을 위하여 교섭대상 학교 중 이번 순회전에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였던 시카고대학 박물관과의 파트너 관계를 맺어, 시카고대학 박물관이 각 교섭 대상 학교측과 상의하도록 하는 합의를 이루었다. 이후부터는 이른바 창구가 단일화되면서 우리측으로서는 협상 과정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전시 계약을 고려대학교 측과 Univ. of Chicago Museum과 주계약을 맺고, 나머지 대학 박물관은 Univ. of Chicago Museum과 전시 계약을 맺음으로써 계약 당사자 모두 신뢰감을 갖을 수 있었고, 특히 우리에게 있어서 협상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었다.

2) 예산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전시기간의 연장이라는 요인과 순회 전시에 필요한 실제적인 예산을 예측, 점검하는 과정에서 앞서 밝힌 1억 3천만원의 예산은 말 그대로 책상 위에서 작성

된 수치였음이 확인되었고, 예산이 증가되자 위 예산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그 이상의 액수를 감당할 수 없음을 통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새로운 스폰서를 찾아야 했고 새로운 전시계획서를 문화사업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삼성에 제출하게 되었다. 다행히도 삼성은 순회전시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삼성 소속의 제일기획에 사업검토 및 협조 방안을 협의토록 하였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예산요구가 1차에 1억 8천만원, 2차에 2억 2천만원, 3차에 3억원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앞서 밝힌 것처럼 정확한 예산을 산출하지 못한데 요인이 있다. 2차 예산요구까지 어느 정도 협찬 의사를 밝혔던 삼성측은 3차 예산요구에 후원여부의 결정을 미룬 채 심의 중이라는 답변만을 계속하여 전해 주었다. 문제는 이때가 1995년 10월경으로 이제 1996년 8월로 시작되는 순회전시의 협상이 미국 대학 측과 거의 완료되었던 시점이었다는 것이다. 삼성측에 최종 결정을 부탁한 공문에서도 끝내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자 협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전격적으로 삼성측에 예산지원 요청을 포기하는 의사를 전달하고 현대측에 새로운 전시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현대와의 인연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주)현대해상화재보험에서는 박물관 종합보험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있던 중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 대여시 제1호로 고려대학교 박물관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접수하게 되었다. 이후 좋은 조건과 낮은 보험료를 및 본 박물관의 소개로 인하여 고려대학교의 유물을 대여하는 기관에서 대부분 이 상품에 가입하게 되었다. 초창기 위 상품의 최초·최대 피보험자요, 최대의 홍보자가 고려대 박물관이 된 셈이다. 그리고 순회전시에 대한 예산을 점검하는 가운데 유물의 전시·운송과정에 대한 견적을 위 회사에 의뢰하게 되었다. 물론 이것은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위 상품이 개발된 후 이 전시회의 보험을 유치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품의 가치 측면에서 최대의 건수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런데 삼성이 지원할 경우 위 회사가 보험을 접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후로 위 회사에서는 순회전시에 대한 자체 지원은 어렵겠지만 그룹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오고 있었다.

1995년 10월 25일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을 통하여 접수된 예산은 그 사이 최종적으로 점검한 최종예산 3억5천만원에 예비비 3천만원을 추가한 3억 8천만원이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액수면 계획된 모든 행사를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모두 믿고 있었다.) 그리고 지원신청서에 확실하게 추가된 것은 이번 순회전시의 협찬에 대한 현대측에 제공될 예우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을 담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협조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낭비하고 있었다.

이때 윤세영 박물관장은 현대의 아는 분을 통해 현대그룹과 직접 담판을 지을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결코 순탄하지 않았겠지만 그 담판회담의 결과 위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전

액 현대그룹의 이름으로 지원 받기로 극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1월 현대측으로부터 신청예산 전액을 지원하겠다는 통보를 정식으로 받기까지 실로 아슬아슬하고 험한 여정이었다. 이 극적인 결정이 없었다면 국제적 망신과 도의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다만 놀랍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집행위원회의 그 누구에게서도 안될 것이라는 부정적 표현을 들어 본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집행위원 중 앞서 밝힌 3분은 위와 같은 답판을 이미 회의석상에서 밝혀왔었고, 각자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전시준비

1) 전시운영위원회

전시의 제반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초기 단계에서는 전시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전시의 주제와 작품의 선정, 전반적인 행사의 방향 등을 논의하게 되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은 본교의 윤세영 교수(박물관장), 이기서 교수(한국학연구소장), 권영필·김재열·유영대 교수(한국학연구소 소속), 변영섭 교수(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이성미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Kimerly Rorschach(시카고대학 박물관장), 김우림·김상덕(박물관 학예사) 등이었다.

전시운영위원회에서의 가장 큰 논쟁거리였던 것 중 하나는 작품을 선정함에 있어서 문인화가외에 직업화가의 작품을 선정할 것인가와 다른 하나는 붓·벼루·연적·연상 등 그림을 그리는 도구도 함께 넣어 사랑방의 분위기까지도 연출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전자는 비록 직업화가일지라도 문인화풍을 적극 표방한 작가에 한해서 선정하기로 하였고, 후자는 박물관측의 반대로 그림에 한해서 선정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자의 결정에 대해 순회전을 마친 필자의 지금 소견을 밝힌다면 보다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는 전시주제의 일관성 및 작품의 통일성, 전시기법상의 문제 등을 위해서 너무나 옳았던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 전시회가 문인화를 통한 조선시대 선비의 정신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그 자체에 목적을 두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문제는 전시제목을 다루면서 부연 설명하겠다.

이밖에 예산 등 구체적 내용의 결정은 박물관과 한국학연구소 관계자만 참석하여 진행하는 집행위원회 성격의 모임으로 문제를 논의하여 결정하였고, 전시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집행위원회의 회의로써 제반 문제를 논의하게 되었다.

2) 전시제목

이번 순회전의 한국어 제목은 처음부터 주제목은 『朝鮮時代 선비의 墨香』, 부제목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文人畫”展으로 정해져 있었다. 문제는 영어 제목을 정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권영필 교수와 시카고대학 박물관 큐레이터인 Mr. Richard A. Born에 의해서 정해졌다. Richard A. Born은 전시위원회의 초청으로 전시에 관한 전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내한했는데 이때 영문제목이 결정되었다. 권영필 교수는 처음에 주제목으로 전시제목 중 墨香을 그대로 번역한 “The Perfume of Ink”를 제안했었는데 Perfume이라는 단어는 좋은 향기뿐만 아니라 악취나는 향기를 내포하고 있다는 Richard A. Born의 설명에 다음날 다시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다음날 권영필 교수가 “The Fragrance of Ink”를 제시했고 Richard A. Born은 그 즉시 아주 훌륭하다는 답변과 함께 결정을 보게 되었다. 곧바로 부제도 “Korean Literati Paintings of the Chosŏn Dynasty(1392~1910) from the Korea University Museum”으로 결정하기로 합의가 되었다. 이것이 전시제목의 결정 과정이었는데 이 제목은 이번 전시와 함께 극찬을 받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New York Times의 Art Review 기사에서는 “‘The Fragrance of Ink’ is the hefty title of a lovely, lighter-than-air”라고 시작하는데 번역하자면 “‘The Fragrance of Ink’는 사랑스럽고 공기보다 가벼우면서도 의미심장한 전시명이다”라는 것이다.

이밖에 이 전시명은 미국 신문들의 기사에서 “The Fragrance of Ink에서 실제로 아무런 향기도 맡지 못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랜 시간 속에서 은은히 풍겨나는 문화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등의 표현으로 적절히 사용되어져 왔다.

이번 순회전에 미국에 10개월간 직접 체류하면서 미국인들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말한다면 기존의 동양의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회의 제목들이 대부분 “The Spirit of China”식의 동양의 정신과 전통 또는 혼을 지극히 강조하는 전시명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시명에 서양인들이 식상해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The Fragrance of Ink”는 한결같이 너무나 詩적이며 아름다운 전시명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기존의 한국문화에 관한 일련의 전시들이 특별한 주제를 갖지 못하고 비교적 다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호소력 및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평을 하는 것을 듣기도 하였다. 이것은 유물의 다양함보다는 그 전시회가 가지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이 명쾌하게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전시도록 제작

전시도록 및 포스터, 우편엽서를 제작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앞서 밝힌 것처럼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서는 제작과정에

서 나타난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전시도록은 국문과 영문을 같이 전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논문과 작품의 해제는 권영필 교수, 이성미 교수, 변영섭 교수 세분이 맡아주셨다. 세분의 논문과 해제는 각각 아는 분을 통하여 영역이 되었고, 이 영문들은 다시 Native English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교정(Edit)하기로 되어 있었다. Editor는 이성미 교수의 소개로 SOSA, University of London에 박사 과정에 있었던 Rose E. Lee에게 의뢰하였다. 이 사람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면 중국계 미국인으로 위 대학에서 중국미술을 전공하고 있고, 한때 연세어학당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였는데 한국어 대화가 능숙하지는 않지만 한글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해독하는 데는 그리 문제가 없는 분이였다. 따라서 이 일을 하기에 최상은 아닐지라도 상당히 적당하였으며, 더욱이 필자와 작업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Rose E. Lee의 지적에 의하면 한 분의 영역은 비교적 무난하나, 이 영역 역시 다른 한 분의 영역과 함께 Native English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닌 분이 영역을 한 것이 드러나고, 또 다른 분의 영역은 미술사를 전혀 모르는 가운데 영역을 한 것이라 더욱 문제라는 것이었다. 당시 Rose E. Lee는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초기의 DHL과 FAX로 오고갔던 교정 작업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고 급기야 한국으로 직접 초청하게 되었다. 5일로 예상하던 작업이 기약없이 늘더니 결국은 12일간 철야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미 도록을 편집하고 있던 정디자인에서는 더 이상의 수정은 시간상 불가하다는 통보까지 받아가는 중이었다. Rose E. Lee가 아쉽다며 마친 최종 영문원고는 다시 시카고대학 박물관에 보내졌는데 그곳에서도 2일간의 밤을 새가며 교정하여 온 것이 상당량이었어서 Rose E. Lee와 상의하여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기로 하였는데 대부분 수용되었다. 정디자인에서는 이제는 이 수정분을 전면수정이 아닌 짜집기로 고칠 수밖에 없다고 하여 실무진과 필자가 싸움 직전까지 가며 실랑이하고 있을 때 정디자인의 대표인 정병규씨가 이렇게 열심히 좋은 책 만들겠다고 노력하는데 우리의 목표가 역시 좋은 책 만드는 것 아니냐면서 새롭게 수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사실 이때는 이미 한달 가량 새벽 2~3시까지 필자와 수정의 수정을 거듭하여 직원들은 탈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여기에 또다시 날아 들어온 시카고대학 측의 또 다른 교정 FAX까지..... 실로 Edit의 과정은 끝까지 피를 말리는 작업이었다.

비록 길게 Edit의 작업과정이 서술되었지만 Rose E. Lee에 의하면 기존의 한국 문화를 영문으로 표기된 책을 접하게 되면 번역상의 문제로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여 덩게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비록 이번 도록의 영문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영문의 Edit 작업을 위해 실로 엄청난 작업량과 시간, 이에 따라 예기치 않았던 많은 예산을 소요하게 되었다.

“The Fragrance of Ink”의 전시 도록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이 쏟아져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다.

다만 포스터 제작에는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것은 첫째, 포스터는 2종을 제작하였는데 하나는 우리측에서 제작하고, 다른 하나는 시카고대학측에서 제작하였다. 우리측에서 제작한 것은 종이의 색분해가 진하고 두께가 너무 얇았었고, 미국측에서 제작한 것은 색분해가 너무 얇게 나왔다. 우리측은 도록에 너무 집중하느라 포스터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고, 미국 측에서는 작품의 원본에 익숙하지 못해서 그랬으리라 짐작된다.

미국에서는 포스터를 하나의 작품으로 인식하여, 포스터를 액자화하거나 포스터 그대로 집안의 장식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지질이 두껍고 보통 1장에 \$10~17에 판매되고 있는데 반해 우리측에서 제작한 것은 너무 얇아 상품가치가 없다는 것이었다. 더욱이 필자는 전시 일정상 도록 및 포스터의 완성품을 보지 못하고 미국으로 먼저 출발하고, 도록 및 포스터는 인쇄소에서 바로 공항으로 보내어 미국으로 운송하게 되었는데 정디자인측에서 포스터를 삼등분으로 접어 포장하여 보내 버렸다. 처음 전시장인 콜롬비아대학에서 필자와 같이 포스터 포장을 뜯는 순간 그곳 사람들의 탄식과 안색이 변하는 표정이란 가히 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모르리라. 결국 이렇게 포장 운송된 포스터는 현지에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퍼지지 않은 것이 많아 그나마도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어 \$3~5에 판매하게 되었다. 포스터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었다.

4) 운송 및 보험

운송 및 보험 문제는 우리 박물관으로서는 이러한 해외 순회전에 대해 경험이 없는 관계로 처음부터 만만한 사항이 아니었다. 따라서 미술품 운송 및 보험문제에 관해 경험이 많은 기관의 자문 및 자료수집 등이 필요했으며, 이 문제는 호암갤러리의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황규성씨의 도움이 상당히 유효하였다. 그는 전시유물 수출입절차, 수출절차별 주요서식, 수출통관절차, 미술품 보험에 대한 문제 및 기타 해외 전시에 관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소상히 가르쳐 주었고, 그의 도움은 순회전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운송 및 보험에 관한 업체선정에 있어서 집행위원회의 결정은 현대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시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원금의 일부나마 마땅히 현대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견적에 따른 입찰 등의 순서를 거치지 않고 오로지 운송은 (주)현대물류, 보험은 (주)현대해상화재보험과 상의하여 이루어졌다.

먼저 운송에 관한 내용에 앞서 전시 유물 포장에 관한 내용을 보고하면 다음과 같다. 역시 해외 순회전에 관한 경험이 없는 관계로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에 정식공문으로 요청하여 김홍식씨의 도움을 받았다. 유물 운반 상자는 액자 및 족자 운반 상자용으로 알루미늄 뉴루 상자 2개(121×99×80, 102×93×68cm), 병풍 및 큰 액자용으로 나무 상자 3개(211×54×73, 228×56×68, 158×50×95cm)로 총 5개의 상자를 주문 제작하였는데, 김홍식씨는 이 과정

에 조언을 해주었고 직접 3일간 고려대학교에 와서 최종 포장과정에 참여하여 주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유물을 포장한 상태에서 5개 상자의 총무게는 792kg 이었다.

운송은 시카고대학 박물관과의 계약에 따라 고대측은 한국에서 미국 공항까지의 왕복 과정만을 담당하고, 시카고대학은 미국내의 내륙 운송을 담당해주시기로 함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 당연한 결정이었겠지만 만약에 국내 물류회사를 통하여 그 회사의 미국 협력 업체를 이용해 미국 내륙 운송을 하였다면 비용은 고사하고 그 절차가 얼마나 복잡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우리측은 미국 공항까지의 왕복 운행만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주)현대물류(이하 물류팀)와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보험팀)과 공동으로 상의하여 운송 및 보험을 동시에 진행한 과정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 박물관에서는 전시에 출품되는 모든 유물의 가격을 산정한 결과 총 100억원의 평가액을 확정하였다. 위 유물의 서울에서 뉴욕 JFK공항까지의 물류팀의 최초 견적(96.417)은 다음과 같다. ① 평가액 100억원의 유물 운임은 종가운임 적용시 운임료만 약 5억원, ② 중량운임 항공보험 가입시 항공운임 368만원, 항공보험료 1억 5천만원, ③ 단일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항공운송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파손, 도난, 분실등)에 일체의 책임을 운송사가 지지 않을 경우 운임료가 786만원이라는 것이었다. 세상의 어떤 화주가 ①,②항의 비용을 들여 물건을 보낼 것이며 또한 어떤 박물관 관계자가 ③항의 조건으로 유물을 보내겠는가? 이러한 견적은 물류팀이나 보험팀이 모두 부피 및 중량면에서 하잘 것 없는 물품이 100억원이라는 고액이라는 점에서 처음 접하게 되는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보험팀은 상품접수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물류팀은 오히려 취급을 회피하고 싶은 입장에서 나온 견적을 알게 되었다. 이에 따라 물류팀에게 우리가 현대그룹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행사인 까닭에 오로지 현대 계열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보험팀과 더불어 실현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보험팀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사측과 체결한 포괄보험계약인 항공화물화주보험(Shipper's Interest Insurance, 이하 SII)을 이용하여 운송 및 보험문제를 풀어나가기로 제안해왔다. 그러나 이 문제도 간단하지 않은 것이 위 SII는 아직 보험팀에서 체결만 된 상태이지 시행을 하지 않았던 계약이었던 것이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 법무실팀과 화물부, 그리고 현대 보험팀과 필자가 모여 위 보험의 적용에 관한 회의를 하게 되었고, 결과는 위 SII를 적용하여 이번 항공운송을 취급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에 따라 나온 항공운송 보험료였는데 평가액 100억 원에 대한 적하보험요금(구상권포기조건)에 따르면 Breakage 포함조건이 6천1백만여 원, Breakage 제외조건이 1천2백만여 원이었다. 이 금액 역시 예상액보다는 많은 것이었다. 따라서 항공운송에 관한 한 유물의 평가액 100억원은 그대로 둔 채 30억원 한도에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Breakage 제외 조건의 요율 252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기로 하였다. 항공운송의 보험을 해결하고 물류팀과의 운송료 협상은 물류팀의 입장변화와 적극적인 협조로 중량운임만을 적용하여 368만원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밖에 물류팀은 고려대에서부터 공항까지 무진동 차량을 이용하는 등 유물의 안전 및 수속에 최선을 다하여 주었다. 그러나 물류팀과의 문제점이 없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필라델피아에서 전시를 1998년 1월18일 마치고 포장시간을 거쳐 1월 26일(월요일, 미국날짜)에 출발하기로 한달 전부터 물류팀과 예약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물류팀으로부터 1월 24일 갑자기 연락이 오길 유물이 한국에 도착하게 될 날짜가 1월 28일이 되기 때문에 설날 연휴인지라 통관이 안될 수 있고, 이 경우 김포공항 창고 보관료가 유물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루에 몇 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출발을 연기하여 주거나, 예정대로 진행시 물류팀은 통관 지체시 발생하게 될 보관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것은 분명 설연휴로 인한 창고 보관료를 점진하지 못한 물류팀의 실수임이 자명한 일이었다. 따라서 고려대학교 박물관은 1월 26일 자로 운송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며 혹시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는 보관료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음을 밝힌 공문을 발송하고 예정대로 운송을 진행하였다. 다행히도 도착 당일 유물은 공항의 세관을 별다른 지체없이 통과하여 고려대학교 박물관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물류팀의 오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물류팀이 보여준 노력은 성의가 있었으며 깨끗한 끝마무리로 일을 마치게 되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보험팀과의 나머지 보험을 진행하면서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항공운송만을 따로 보험을 들은 것은 보험팀이 SII보험으로 인해 비교적 싸게 이 부문을 담당할 수 있다는 권유에 의한 것이었다. 역시 유물 반입시에도 미국 공항으로부터 고려대까지는 SII보험으로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5개 대학 전시장과 미국내의 내륙운송에 대한 보험체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여기서 6개 대학이라 하지 않고 5개 대학이라 함은 당시 5개 대학으로 진행되다가 1개 대학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5개 대학 전시기간과 4번의 미국 내륙운송에 대한 보험은 예산의 추정 단계 때부터 100억원의 평가액에 대한 보험금이 약 3천만원 정도 예산이 된다는 보험팀의 통지로 그 정도의 예산을 책정한 채로 진행되었다. 보험사의 요청으로 미국 5개 대학의 전시실에 대한 화재 및 안전관리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도면까지도 일괄 시카고대학 측으로부터 접수하여 전달하였고, 운송을 담당할 미국의 미술품 전문 운송 업체인 North American Van Lines에 대한 정보까지도 보험팀에 전달하여 보험체결에 대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 해외 반출 심사를 반출 2달 전에 마쳐야하는 관계로 준비서류의 하나인 보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출을 2달여 앞둔 1996년 5월 3일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5개 대학의 전시기간에 대한 보험요율은 확정되었는데 4번의 미국 내륙 운송에 대한 재보험회사의 요율이 확정이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팀의 권유로 일단 확정된 보험료 3천만원을 납부하여 보험을 체결하

고, 나머지 운송부문은 같은 건이기 때문에 운송에 대한 보험료는 적어도 500만원 이내에서 재보험회사와 타협을 볼 수 있겠다는 언약을 받아 놓고 요율이 확정되는 대로 추가 계약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유물이 출발한 7월말까지도 운송에 대한 요율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미국 내륙운송에 대한 보험을 체결한 채 유물은 7월 31일자로 미국으로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요율은 미국의 첫 번째 전시를 거의 다 마치고 거의 내륙운송이 시작할 시점에서 운송 요율이 나왔는데 이 부분만 3천만원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험팀의 논리로는 운송에 대한 요율이 늦게 나온 것은 재보험회사와의 협상 당시 미국의 NBA의 우승컵이 운송 도중 도난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협상이 늦어졌고, 이 때문에 요율이 상승하여 보험팀이 최선을 다한 협상 요율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보험팀에서 박물관 종합보험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이번 일을 진행함에 있어 재보험회사와의 협상단계에서 경험 및 실적의 부족으로 고객에게 유리한 협상을 벌이지 못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결국 첫 번째 운송이 임박하여 3천만원을 납부하고 운송보험을 체결하였지만, 생각하지도 않은 막대한 지출은 이후의 행사 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다.

보험 및 운송을 전적으로 협상하였던 필자가 미국에 출장인 관계로 집행위원인 유명대 교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현대해상화재보험의 대표이사와 집행위원인 이기서 고려대학교 부총장과의 면담을 약속 받았으나 당일 보험팀의 면담취소 통보와 계속적인 추후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이 문제의 성의있는 노력을 회피하였다고 생각한다. 이로써 오랜 준비과정에서 보험팀이 제시하였던 필요 예산에 대한 견적을 믿고 진행하였던 우리로서는 보험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도 상실할 수 밖에 없었다.

보험 및 운송 부분은 우리로서는 경험이 없어 가장 어렵게 진행되고 말썽이 많았던 관계로 다른 부분 보다 비교적 소상히 밝힌 것이다.

5. 미국에서의 전시 및 활동

1) 학예원의 파견

집행위원회에서는 유물의 안전한 관리, 전시작업, 유물의 운송, 전시 유물의 설명 등과 더불어 학예원의 경험을 위해 유물이 미국에 있는 전 기간동안 박물관의 학예원을 교대로 상주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필자는 첫 번째 전시 장소인 콜롬비아대학과 시카고 대학의 전과정 및 오레곤대학의 전시작업까지 6개월간(96.7.25~97.1.20) 체류하게 되었고, 배성환은 7개월간(96.12.1~97.6.23), 김상덕은 7개월간(97.3.2~97.10.6), 후에 필라델피아 박물관이 추

가됨으로써 다시 필자는 이 과정 전체 4개월간(97.10.1~98.1.28)을 합하여 10개월간의 미국 전시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다.

파견된 학예원의 임무는 유물의 해포 및 포장 작업의 주관, 미국 박물관 큐레이터와의 전시 계획 수립 및 전시작업, 전시유물 상태확인 및 Condition Report 확인. 1주에 2~3회 교민들을 위한 유물 설명회(Gallery Talk)의 진행, 미국 지역 한국 언론에 대한 홍보, 유물의 내륙 운송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함께 탑승하여 운반하는 것 등을 주요 업무로 하였다.

2) 전시일정 및 전시작업

미국의 전시 일정은 다음과 같았다.

전 시 장 소	전 시 기 간
Columbia Univ. Miriam & Ira D. Wallach Art Gallery	'96. 8. 14 ~ 9. 21 (6주간)
Univ. of Chicago David and Alfred Smart Museum of Art	'96. 10. 10 ~ 12. 8 (8주간)
Univ. of Oregon Univ. of Oregon Museum of Art	'97. 1. 10 ~ 3. 9 (10주간)
Univ. of California, LA Fowler Museum of Cultural History	'97. 4. 6 ~ 6. 8 (9주간)
Univ. of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Art Museum	'97. 7. 23 ~ 9. 23 (8주간)
University of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Museum & Arthur Ross Gallery	'97. 10. 18 ~ '98. 1. 18 (11주간)

위 일정은 처음 계획에 의하면 5개 대학을 동부·중부를 거쳐 서부에서 전시하고 귀국하는 일정이었으나 후술할 필라델피아 박물관이 추가됨으로써 다시 동부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결과를 맞았다. 그러나 당초의 5개 대학 일정을 살펴보면 모두들 가장 합리적인 일정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왜냐하면 각 지역의 전시 일정이 그 지역의 가장 좋은 기후 조건을 갖는 계절이거나 적어도 나쁜 기후를 피해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예전의 어떤 한국 순회전은

가장 추운 한 겨울에 Windy City라는 시카고를 거치는 등 최악의 일정을 가졌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전시 작업은 각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 전시 장소인 콜럼비아대학은 Museum이 아닌 Gallery로서 관장 및 Gallery의 시설 전반을 맡고 있는 기능직 1인이 주요 인원이고 매 전시 때마다 필요 인력이 결성되거나 또는 의뢰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전시는 필자가 전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전시 공간이 마침 4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어 도록의 체계인 산수, 산수인물, 사군자, 영모·초충의 배열로 전시하였다. 전시 작업은 미술 전문업체의 용역 아르바이트생(콜럼비아대학 미술전공 대학원생) 2명과 위 기능직 1명과 같이 진행하였다.

이후의 전시는 각 대학에서 미리 전 단계의 전시를 점검하여 전시 계획서를 앞 전시장에 체류하고 있던 필자에게 송부하였고, 이를 필자가 검토한 후 다음 전시장에서 세부 상황을 점검하며 논의를 거쳐 전시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번째 전시 장소인 시카고의 경우는 큐레이터인 Richard A. Born이 작품을 시대순과 주제별을 배합하여 관람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잡아 놓았는데, 작품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한 극히 일부분만 교체한 것을 제외하곤 거의 완벽하여 그의 계획대로 전시를 하였다. 시카고대학 박물관은 지하에 대규모 작업실이 있어서 전시에 필요한 모든 작업(전시 벽면 설치, 진열대 제작 등)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설과 기술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세 번째 장소인 오레곤대학 박물관 역시 계획서를 본인에게 송부하였는데 박물관 1층의 큰 전시공간 2실을 이용하여 위에서 말한 도록 체계의 전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연구가 부족하여 전시 작품의 진열 순서에 있어서는 상당부분 필자의 의견이 반영되어 교체되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특징은 박물관의 인원 중 전문 디자이너가 있어 전시의 흐름도, 전시실 내부 및 모든 전시 기법상의 색상과 방법 등 전시에 필요한 제반 문제가 디자이너에 의해 연구되고, 대체로 그의 제안에 따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3) 전시의 교육적 활동

우리 박물관에서 파견된 학예원들이 미국 전시를 통해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이번 전시에 대한 그들의 교육활동에 대한 것이다. 시카고 대학 박물관의 경우 2명의 교육담당 큐레이터(Educational Curator)가 있는데 이들의 활동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어떤 특별전이 박물관에서 확정되면 그때부터 이들은 특별전의 주제와 그 내용에 대한 연구에 들어가고, 또 이것을 각 대상층(연령별, 교육 수준별)에 맞는 각각의 프로그램을 확정한다.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시카고 지역의 학교 및 기관에 소개하여 박물관 프로그램을 원하는 학교 및 기관의 신청을 접수받아 일정을 조절한다. 그리고 실제의 교육은 위 2명의 교육 큐레

이더뿐만 아니라 시카고대학 미술관련 전공학생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인원을 적당한 인원으로 분배하여 교육하고, 교육이 끝난 후 다시 함께 모여 교육의 성과를 논의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것을 다음 교육에 반영하고 있었다. 비록 간략하나마 위와 같이 이들은 오로지 박물관의 교육적 기능만을 담당하고 있었다.

한편 필라델피아의 경우는 특수한 경우인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펜실베이니아대학에서는 Arthur Ross Gallery에서 주요 소장품을 전시하고, 전시 공간의 부족으로 扇面類는 Univ. of Pennsylvania Museum에서 전시하게 되었다. 위 Gallery는 관장과 사무직원 2명으로 운영되는데 학교 예산 중에는 갤러리의 전시시 진행되는 전시교육에 대한 기금이 조성되어 있어 전시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만 이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번 특별전에는 프리젠테이션 Ms. 세바스찬이 맡게되었다. 그녀는 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만을 위주로 용역을 맡아 일을 한다는데 필라델피아 Gallery에서 많이 일을 하였다고 한다. 이번 전시의 교육 프로그램은 Free School(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구성되어 졌으며, 이 일을 위하여 4명의 팀을 구성하였다. 이들 중 두 사람은 한국의 위치서부터 중국과의 관계, 문인의 입장과 그림에 있어서의 자연에 대한 관심도 등에 대하여 연극식으로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데 각종 소품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슬라이드 및 각종 소품을 이용하여 앞의 연극을 보조하고 가끔씩 그 연극에 참여하며, 다른 한사람은 5개의 관악기(플룻, 팬플룻, 대나무 피리 등)를 이용하여 연극의 배경음악 및 상황 변경 등의 각종 효과음을 연출하는데 아리랑도 훌륭히 소화해 내었다. 이들의 교육은 모두 준비된 대본에 의하여 연출되어 졌다. 이후 몇몇 전시작품 앞에서 간단한 설명을 한 후에 비록 재료는 도화지와 연필이지만 맘에 드는 작품을 선정하여 그려보는 시간을 갖게 하는 순서로 진행되어졌다. 미국 아이들에게는 생소한 한국의 문인화에 대해 설명하기에 준비한 이러한 프로그램은 그들이 무언가를 느끼기에 충분한 흥미유발을 시키고 있음은 분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말에 두 팀씩 5주간 총 10회로 진행되었다.

또한 펜실베이니아대학 박물관에서는 선면류를 먼저 관람하게 한 후 프린터 복사물을 통하여 동양화의 각종 기법에 대해 설명하여 주고, 비록 도화지이지만은 먹물과 붓을 이용하여 직접 학생들에게 그려보게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 행사는 4주간 8회 진행되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특별전과 함께 연계한 박물관의 다양하고 적극적 교육 방법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국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에서 개최하였던 『우리 옛 돌조각의 힘』이라는 특별전에서 그 대학부속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찰흙으로 돌조각을 빚게하고 그것을 다시 전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처럼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이 박물관에 의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기를 바란다. 다만 이러한 기능이 기존의 학예원들이 아닌 미국처럼 교육 담당자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다면 하는 바램도 한 줄 적어본다.

한편 파견된 우리 학예원들이 담당한 교육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들은 영어의 한계 때문에 미국인들에 대한 공개적인 행사는 없었지만 교민들을 위하여 각 전시 기간동안 일주일에 2~3회의 전시작품 설명회(Gallery Talk방식)를 가졌다. 미국의 모든 박물관들은 우리의 이러한 역할에 극히 만족하며 적극 협조하여 Korean Gallery Talk에 대한 안내문을 인쇄하여 홍보를 하여 주었고, 교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찬사와 호응을 보내주었다. 미국 대학 박물관에서 우리의 유물 앞에서 우리의 말로 설명을 듣는 감회와 감동은 그분들에게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으리라 생각한다. 교민들이 보내주었던 찬사의 극치는 이것이었는데 그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설명을 들으러 왔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평가는 때론 언론의 힘보다 커서 많은 교민들의 관람으로 이어졌다.

4) 언론 및 현지의 반응

미국에서의 언론에 이번 전시를 알리는 일은 자연스럽게 업무가 분담이 되었다. 즉 각 박물관은 그 지역의 미국 언론에 이 행사를 알리는 것이었고, 파견된 학예원은 현지 미주 한인 언론에 홍보하는 것이었다.

미국 언론의 반응은 각 지역의 대표적 일간지들이 Art Review기사로 심층 취재하여 이번 전시를 극찬하였다. 그중 인상 깊었던 몇몇 표현들은 귀국전의 브로셔에서 소개를 한 바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The Fragrance of Ink” is the hefty title of a lovely, lighter-than-air. (“The Fragrance of Ink”는 사랑스럽고 공기보다 가벼우면서도 의미 심장한 전시명이다.)

The Dynamic swing between tradition and innovation that characterized the Korean art of the Chosŏn Dynasty is very much alive in contemporary Korean art. In recent years, increasing numbers of young Korean artists have shown in New York, and this season promises a bumper crop. “Fragrance of Ink,” beautiful in itself, is a good chance to find out where they’re coming from.

조선시대의 한국 예술로 특징지어지는 전통과 혁신 사이의 역동성은 현대 한국 미술에 있어서도 그대로 숨쉬고 있다. 최근 들어 New York에는 많은 젊은 한국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두드러진 활약이 기대되어 진다. “Fragrance of Ink”는 그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들의 활약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New York Times》

September 6, 1996

Exquisite repose

(절묘한 조화)

The smart’s installation suffers a bit from the smallness of the gallery, at times inducing an alien tension. But, aside from that, the pieces receive every advantage, making for an appeal that goes beyond asian art specialists.

Smart(시카고대학박물관)의 전시회는 공간의 협소함과 동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문제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각각의 작품들은 아시아 예술 전문가들의 전시에 대한 걱정을 뛰어 넘어 성공을 거두기에 부족함이 없다.

《Chicago Tribune》
November 8, 1996

Korean Inks Record the Personal Cosmos
(한국의 墨은 개인의 우주를 기록)

There's a great lesson here. Even visitors unfamiliar with Confucian symbolism and unable to decipher Korean calligraphy can come away with a sense of what individual artists intended expressively because the drawn line is eloquent in itself. We know that Yi Kyong-yun's "Album of Figures in a Landscape" is modest, straight-forward and amused. We see that Yu Tok-Chang's "Bamboo" was made by someone detached, masterful and a little ironic. Kim Hong-do's rendering of an immortal playing an instrument under a tree makes us almost hear its flutey sound.

여기에 훌륭한 교훈이 있다. 유교적 상징에 친밀하지 않고, 그림에 있는 문자를 해독할 수 없는 관람객이라 할지라도 작가들이 무엇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림의 선, 그 자체가 설득력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경운의 인물 산수화가 절도 있고, 솔직하면서도 해학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덕장의 대나무에서는 초연함과 능숙함, 더불어 풍자적인 묘미를 느낄 수 있다. 김홍도가 그린 소나무 아래에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선인의 묘사에서는 마치 우리가 피리 소리를 듣는 듯 하다.

《Los Angeles Times》
April 12, 1997

이밖에 Chicago Sun Times('96.11.18), San Francisco Chronicle('97.6.26) 등 그 지역의 주요 일간지뿐만 아니라 잡지, TV, 라디오 등 여러 매체를 통하여 이번 전시가 소개되었고 귀국전에서 그에 대한 것을 일부 소개한 바 있다.

한편 미주의 한인 언론들은 이번 전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한인 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여러 차례 특기사로 다루어 주었다. 파견된 학예원은 여러 차례 인터뷰에 응하여 신문, 라디오, TV에 출연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하였다.

파견된 학예원들이 생소한 미주 언론을 접촉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처음 필자가 뉴욕에 도착하여 집행위원회의 유명대 교수와 함께 전시가 시작되기 전에 뉴욕지부 고대 동문회를 연결하여 찾아갔었다. 마침 회의가 있어 임원진과 전체가 모여 있어 이번 전시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반응은 냉담하여 문화의 일이라면 동문회를 찾을 것이 아니라 문화관련 단체에 가서 협조를 구하라는 답변만 듣고 그 자리를 쓸쓸히 일어서야 하였다. 필자로선 감히 상상도 못한 결론인지라 몹시 당황스러웠던 기억과 과연 이 전시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한국에서부터의 고민이 엄습했던 기억이 난다. 따라서 한국 언론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준비한 보도자료와 도록 등을 전달하고 보도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언론들은 적극 보도를 하여 주었다.

시카고에서도 역시 일단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도 믿는 구석이 고대 동문회인지라 동문회장을 찾아갔다. 여기는 상황이 아주 반전되어 동문회장의 적극 후원으로 시카고의 전한인 언론을 모두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전시를 소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시카고의 고대 김병구 동문회장의 공적을 잠시 소개하면 그는 한 여행사와 계약을 하여 한 지역의 노인 아파트 지역에서 전시장소까지 1주일에 2번씩 4주간이나 버스를 대절하여 무료로 이들을 전시 관람하게 하였고, 필자는 이들에게 예정된 일정의외에 별도로 전시 작품을 설명해주어 한인 사회는 물론 시카고대학 박물관 관계자들에게 훈훈한 미담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로는 이미 이번 전시회의 성공 소식과 성과물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라 이후 개최된 전시회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언론 및 교민사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으며 진행되었다.

한편 관람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콜럼비아대학 갤러리 : 1,160명, 시카고대학 박물관 : 5,000여명, 오레곤대학 박물관 : 12,000여명, UCLA대학 박물관 : 6,460명, UC버클리대학 박물관 : 8,994명, 펜실베니아대학 갤러리(박물관 통계 제외) : 2,947명으로 총 36,500여 명이 관람하였다.

위의 관람객 숫자들이 언뜻 숫자적으로만 판단한다면 그리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으나 각 대학 박물관 관계자들은 대학 박물관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모두 만족할 만한 통계라고 설명해주고 있다.

콜럼비아대학 갤러리의 경우는 가장 적은 관람객을 기록하였는데, 6주간의 가장 짧은 전시와 갤러리의 개막시간이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1시부터 5시까지만 개관을 하는데다가 콜럼비아대학의 위치가 뉴욕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관람객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그곳 관장의 이야기로는 하루 평균 50여명이 관람한 수치였는데 결코 작은 인원수가 아니며 기존의 전시에 비해 성공적인 전시라는 평이다. 한편 콜럼비아대학 갤러리는 뉴욕의 유명한 대학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명분을 제외하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막시간 및 위치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고 싶다.

오레건대학의 경우는 1만 2천명의 최다 관람객이 동원되었는데 그곳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인구 10만의 도시에 1/10 이상의 인원이 다녀간 것이며, 1932년 개관 이래 특별전에 동원된 최대 인원이었다고, 전시기간에 대비 하루에 400명이 관람한 최대 성과의 전시라는 것이다.

이러한 순회 전시의 성과는 필라델피아에서의 추가 개최로 이어졌다. 필라델피아의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International의 원장인 최임자씨는 본 순회전의 성과를 접해듣고는 Univ. of Pennsylvania Museum과 상의하여 그곳에 추가로 전시하게 됨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전시를 연장하여 줄 수 있느냐는 제안을 고려대학교 측에 보내왔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민들이 전시후원회를 결성하여 전시 비용 \$100,000을 모금하고, 펜실베니아대학 또한 전시 유치를 희망하여 보험료를 부담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것

은 전시의 성과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도 (주)아남USA 정홍택 사장의 \$40,000 지원 결정이 큰 힘이 되었다.

5) Seminar 및 기타 행사

당초의 행사 기획에서 우리측에서 계획하였던 전시회와 연관된 학술행사는 시카고대학에서의 학술세미나와 기타 대학은 간단한 Lecture, 마지막 전시 장소인 UC Berkeley에서 전시회의 대단원을 내리는 국제학술 Symposium을 개최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시카고대학에서는 안희준 교수(서울대학교), 권영필 교수(고려대학교), 이성미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백금자 박사(Asian Art Museum of San Francisco) 4분이 강의하는 Seminar가 개최되었다. 오레곤대학에서는 안희준 교수가 강의를 하여주었는데 당시 안희준 교수는 당시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계속해서 초청되었다. 그리고 UCLA에서는 백금자 박사가 UC Berkely에서는 권영필 교수가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앞서 밝힌 것처럼 보험료 გადა지출 등 예상하지 못한 예산 지출로 인하여 국제학술 Symposium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위의 내용은 우리측이 준비한 행사이었고, 이밖에 각 대학에서는 별도로 한국 미술 및 문화를 소개하는 강좌를 전시회와 연계하여 여러 차례 개최하였다.

또한 시카고대학에서는 교포2세를 주축으로 한 시카고대학생 한인회에서 시카고대학 박물관측과 협의하여 “한국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위 학생들이 자신들의 미국인 선생과 친구들을 초청하여 풍물패의 공연, 전시 작품 설명, 한국 음식으로 준비된 다과회 등을 갖는 것이었다.

한편 UCLA에서는 전시 개막식 2부 행사로 우리 문화 공연과 각종 행사를 마련하였다. 부채춤, 장고춤 등 한국 무용과 국악 연주가 진행되었고,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붓과 먹을 준비하여 사군자 그리기, 부채그림 그리기 대회가 펼쳐졌다. 사군자와 부채그림 그리기는 어린이들의 호응이 대단하여 이후 몇차례 이 행사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UC Berkeley에서도 이러한 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여기에서는 전시회 개막 후 그 주 토요일을 “한국 문화의 날”로 지정하여 박물관 내외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샌프란시스코 한국총영사관에서 재정적인 측면 등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 600여 명의 많은 미국인들과 우리 교민들이 참가하여 성황리에 치러졌다. 실내 갤러리 중앙 홀에서는 한국무용과 가야금 연주가 있었고, 붓글씨 쓰기 코너도 준비되어 강사의 간단한 지도와 함께 직접 써보기도 하고 강사가 쓴 것을 선물로 가져가는 미국인들도 꽤 있었다. 점심 시간에는 박물관밖에 한국음식 뷔페가 마련되어 조각 공원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한인 학생들로 조직된 사물놀이 공연을 즐기기도 했다.

위 행사들에서는 특히 가족 단위로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행사를 계획하였고, 실제로 가

족 단위로 참가하여 본인은 물론 어린이에게도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려는 그들의 노력에 많은 것을 배웠다.

이처럼 이번 순회전은 단순히 전시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한국 문화를 미국 사회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6) 유물의 내륙 운송

유물의 미국 내륙 운송에 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전술한 것처럼 이 부분은 전적으로 시카고대학 박물관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유물의 운송은 미술품 운송 전문업체인 North American Van Lines에게 의뢰되었다. 운송 트럭은 정확한 이름은 알 수 없으나 바퀴가 18개가 달려있다고 해서 18-Wheels라고 불리는 거대한 트럭이었다. 파견된 학예원들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함께 탑승하여 유물과 함께 움직였는데, 운전석 뒤로는 2사람이 잘 수 있는 침대와 부엌 시설의 공간이 있었다. 앞서 밝힌 유물 상자 5개만을 싣고 가기에는 너무나 큰 트럭이어서 확인하여 본 결과 안전 때문에 큰 트럭을 운행한다는 것이었다. 운전자는 2사람으로 필자가 경험한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그리고 시카고에서 오레곤까지는 모두 부부가 운전자였다. 이들은 교대로 거의 쉬지 않고 밤낮으로 차를 운행하였지만 각 주의 제한속도 내에서만 운행하였다. 또한 이들은 수시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위치를 회사에 통보해 주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 트럭에 항온·항습 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유물을 싣고 워 시설을 작동하여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온·습도는 기록이 되었고, 이기록을 도착지의 박물관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이에 비하면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게 한다. 거의 모든 박물관은 탑 차라하여 비바람만 막을 수 있는 트럭을 이용하여 그것도 시간 및 예산 절감상 안전은 무시한 채 여러 곳의 박물관을 돌며 유물을 대여해 가고 있다. 그것이 현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제는 우리도 유물 운반시 항온·항습 장치가 되어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6. 現代에 대한 예우

전술한 것처럼 현대그룹에서는 이번 사업에 총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협찬하여 주었다. 이에 대한 고려대학교 측의 현대그룹에 대한 예우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첫째, 먼저 시카고대학 박물관과의 체결한 이번 전시회의 계약서의 제1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 : TITLE AND ACKNOWLEDGMENTS

The exhibition's official title shall be "The Fragrance of Ink : Korean Literati Paintings of the Chosŏn Dynasty(1392-1910) from the Korea University Museum". The exhibition's official acknowledgments shall be "This exhibition is organized by the Korean Studies Institute and the Korea University Museum, Korea University. The exhibition is circulated by the Smart Museum of Art, University of Chicago. It has been made possible by a grant from Hyundai Group." These official title and acknowledgments shall appear in all publications and publicity, including the catalogue, relating to the exhibition. The Hyundai Group's logo will also be incorporated in all publications and publicity relating to the exhibition.

(이 전시회의 공식적인 명칭은 "The Fragrance of Ink: Korean Literati Paintings of Chosŏn Dynasty(1392~1910) from the Korea University Museum"이 될 것이다. 이 전시회의 공식적인 인사말은 "이 전시는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박물관에 의하여 조직되었고, 시카고대학 박물관에 의해 순회되어진다. 이것은 현대그룹의 협찬에 의해 이루어졌다"가 될 것이다. 이들 공식적인 명칭 및 인사말과 현대그룹의 로고는 도록을 포함하여 전시회에 관련된 모든 출판물과 홍보에 사용되어질 것이다.)

이 전시회의 계약서는 시카고대학 박물관에 의하여 기초된 것으로 미국 측의 협찬에 대한 예우 방법을 엿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계약서에는 제1조의 내용을 각 전시장의 입구에 그 내용을 담은 패널을 설치할 것을 명기하고 있다.

둘째, 위 계약서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도록, 포스터 2종, 미국에서 제작된 초청장 및 각종 전시회 관련 유인물에는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단 도록에는 디자인상 현대의 로고를 표지에 사용하는 것은 생략하고, 현대그룹의 위상을 더 높여 주겠다는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의 인사말을 서두에 삽입하였다.

셋째, 집행위원회의 결정으로 현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은 가능한 현대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보험 및 운송은 다른 곳의 견적 등을 알아보지 않고 오로지(주)현대해상화재보험(이하 보험팀)과 (주)현대물류(이하 물류팀)를 이용하였다. 보험팀으로서는 앞서 밝힌 대로 박물관종합보험이라는 상품을 개발하여 놓고 최초·최대의 고객을 고려대학교 박물관으로 확보하여 해외 순회전의 보험 실적을 올림으로써 상품의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크게 힘이 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여담으로 당시 보험팀의 담당자는 이 일로 그 해의 영업 실적 우수자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물류팀에서도 역시 이번 해외 전시의 운송을 담당하면서 얻게 된 것은 이러한 고가의 미술품을 취급하는 실적을 쌓게 되었고, 이 실적으로 인하여 97년도 광주 비엔날레 유물운송을 맡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음을 필자에게 밝힌 바 있다. 당시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물류팀의 실적을 확인하는 공문을 광주 비엔날레 추진위원회에 긴급하게 보내는 협조를 아끼지 않았었다.

넷째, 미국의 각 대학의 모든 개막식에 현대그룹 문화실과 연락하여 그 지역에 주재한 현대그룹 관련 회사의 대표이사 등을 초청하여 개막 협찬 인사말을 하게 함으로써 직접 현대

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전시의 개막식은 각 대학의 관계자뿐만 아니라 저명한 인사가 상당수 참여한 행사였기 때문에 현대로서는 중요한 자리였음이 확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대학 개막식에 참석하였던 Hyundai Corporation(USA)의 김영덕 사장은 가능한 이후의 모든 행사에 참석하여 현대를 홍보하는데 적극 활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후 본인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고, 대신 해당 지역의 현대그룹 관련 인사가 참석하였다. 개막식 행사의 현대 관계자가 참여하여 연설을 한 것으로 하이라이트를 말하자면 단연 오레곤대학의 개막식에서이다. 현대그룹과의 예산 지원 교섭 중 현대의 요구는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전체 행사진행에 어떤 관여도 하고 싶지 않지만 오레곤대학을 전시 대학에 포함시켜줄 수 있는냐는 것이었다. 그것은 오레곤주에 현대전자가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레곤주는 전통적으로 자연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높은 곳이었기에 현대의 반도체공장 설립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개막식에는 Hyundai Semiconductor America의 신동수 부사장이 협찬자로서 TV 인터뷰와 개막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오레곤대학 박물관 부관장 Mr. Lawrence Fong이 필자에게 전해준 말은 그는 오레곤 지역의 환경문제로 수 없이 TV 및 신문에 오르내리는 사람인데 오늘 처음으로 문화문제로 공식 데뷔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오레곤 사람의 현대에 대한 인식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더욱이 전술한 것처럼 오레곤대학에서의 전시 성공은 현대의 이미지를 그 어느 광고 및 홍보보다도 개선시켰음에 틀림없다고 확신한다.

위의 내용은 현대그룹의 협찬에 대하여 전시관계자들이 취한 예우의 주요 내용이다. 전시가 진행되었던 1년 6개월 동안 현대그룹의 이름은 전시회와 함께 움직였었다.

기업의 문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메세나(Mécénat)로 불리고 있다. 지원을 하는 기업의 입장은 필자가 거론할 문제는 아니지만 지원을 받는 측에서의 협찬에 대한 예우는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것이야말로 아이디어는 있으나 예산이 없는 벤처 기업처럼, 고려대학교 박물관이 처한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이러한 해외 순회전과 같은 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다.

7. 맺음말

고려대학교 박물관과 한국학연구소가 공동으로 기획하였던 『朝鮮時代 선비의 墨香』展은 朝鮮時代 文人畫라는 주제로 미국 사회 및 교포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이해시키며, 기대 이상의 찬사와 성원으로 대성황을 이루고 무사히 귀국하였다.

그러나 다음의 미국 신문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여 일부분의 문장을 소개하면서 이 보고서의 결론에 도달하고자 한다.

A Fragrance of Korea in Berkeley Show
(버클리 전시에서의 한국의 향기)

Korea bristles with associations in the western mind. But what about Korean art? Mention of Korea still echoes with sour memories of American military intervention there in the early 1950s. It also stirs curiosity about South Korea's boom economy and anxiety that the still-divided Korean peninsula might be a nuclear flash-point. For all that, the topic of Korean art probably draws a blank. "The Fragrance of Ink," which just opened at the Berkeley Art Museum, tries to fill that blank.

한국은 서양 사람의 마음에 聯想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한국 예술에 관해서는 어떠한가?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여전히 한국에 있었던 1950년대 초의 미국의 군사 개입에 대한 쓰라린 기억들로 메아리친다. 그것은 또한 남한의 경제적 붐에 관한 호기심과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가 핵의 발화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불러일으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예술에 대한 화제는 아마도 비워 있을 것이다. 이제 버클리 박물관에서 개막된 "The Fragrance of Ink"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 하고 있다.

<San Francisco chronicle>
July 26, 1997

위 글은 어떤 의미에서 이번 순회전 "The Fragrance of Ink"에 대한 최고 극찬의 글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웬지 석연치 않는 표현으로 들림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으리라. 아직 우리의 문화는 미국을 비롯한 서양 사람의 사고에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시가 많은 기관의 노력과 기업의 협찬 속에 의해 계속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이 보고서는 약보고서 인지라 위에서 언급한 모든 자료(계약서, 신문, 사진, 교육자료 등)를 포함한 보다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 여건이 허락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이러한 전시를 위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끝으로 『朝鮮時代 선비의 墨香』展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